

나주시, ‘누워서 불 끄는’ 전등 리모컨 노인 200가구에 보급

거동 불편 저소득 노년층 일상 편의·안전 확보... 한전KPS 예산 후원



집)에 의한 골절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연말까지 20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발굴한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독거노인 및 노인세대 200가구를 대상으로 LED전등 교체 및 리모컨스위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나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한전KPS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 1600만원을 후원한다.

리모컨식 전기 스위치가 보급되면 굳이 전등불을 끄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불이 꺼진 후 어두운 방 안에서의 사고 확률을 낮추고 고령자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한전KPS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년층의 일상 안전을 위해 누워서도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전등 리모컨스위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관내 고령자의 주택 내 낙상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신규 복지시책으로 발굴했다. 2020년 7월 기준 나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1.6%로 현재 초고령사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 원인 중 약 60%가 주택 내 침대,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낙상(미끄러

매일유업, 발달장애인 요리교실 ‘셰프학교’에 후원금 전달

1000만원과 제품 지원

매일유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리교실 ‘셰프학교’에 후원금 1000만원과 제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셰프학교에선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음식과 관련한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매일유업은 △상하농원 수

제 소시지 △상하치즈 더블업 체다치즈 △상하치즈 슈레드치즈 △상하목장 슬로우 키친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전달했다.

뉴스1

여주시 ‘치매안심마을’ 4호로 월호동 선정

7개 기관 협약...통장·노인회장 등 기억지킴이 위촉



여주시가 최근 월호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이날 주민설명회 및 협약식을 시작으로 치매안심개선 교육, 치매선별검사 전수조사,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파트너교육,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주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라면을 시작으로, 한려동(2018년), 서강동(2019년)에 이어 올해 월호동을 지정했다.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최초로 섬을 포함하고 있는 월호동을 우선 선정했으며, 현재 1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

어 있다. 시는 이날 월호동주민센터, 여수신월초등학교, 경호초등학교, 봉산과출소, 여수사랑의원, 구봉새마을금고, 농협국동지점 등 7개 월호동 주요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통장단·노인회장단·부녀회장 등을 기억지킴이로 위촉했다.

기억지킴이로 위촉된 박용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통장, 11명의 노인회장, 부녀회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치매조기발견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삼숙 월호동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도 마음 놓고 지내실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곡성군, 맞춤형 치매관리 위해 11월까지 실태조사



65세 이상 35% 넘어...건강한 지역사회 유지위해

곡성군이 오는 11월까지 치매환자 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5%를 넘는 대표적인 장수지역이다. 노년층이 많이 사는 만큼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 치매관리가 필수로 요구된다. 실제로 60세 이상 치매 유병

률 통계에 따르면 곡성군은 11.1%(1,395명)로 전국 7.2%는 물론 전남 9.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2021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치매환자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조사는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8명이 가정 등을 방문해 1:1로 진행된다. 조사를 통해 곡성군은 치매환자들의 거주실태, 돌봄가족, 관련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조호물품 및 치료비 지원, 치매인 인식표 제공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적으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관리 계획수립과 환자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정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돌발변수 발생 시 지역 내 치매환자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